

한국종합에너지(주)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한국종합에너지 - 어깨동무 신나는 집 공동추진

한 국종합에너지(주) 인천발전소 (소장: 한성덕)는 지난 9월 8일 발전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명과 인천 서구에 있는 '어깨동무 신나는 집'(대표: 강수은 목사. 인천시 서구 신현동 - www.joyhome.or.kr) 아동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사업 공동추진에 따른 기념식을 가졌다.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사업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는 슬로건으로 민간기업과 복지시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센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회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 후 자원봉사자들은 아동센터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지붕 누수 및 노후 전기시설)를 한 후, 추석을 맞이하여 아동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함께 시식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999년 설립된 '어깨동무 신나는 집'은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는 비인가 지역아동센터로 30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어깨동무의 강수은 대표는 "한국종합에너지의 봉사활동 참여가 공부방 사업에서 기존 자원봉사자가 하기 어려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동들에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한국종합에너지(주) 한성덕 소장은 "저희 회사의 봉사활동은 인천에 있는 기업으로서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① 석남동에 신석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였고, ② 인천 서구 노인복지센터의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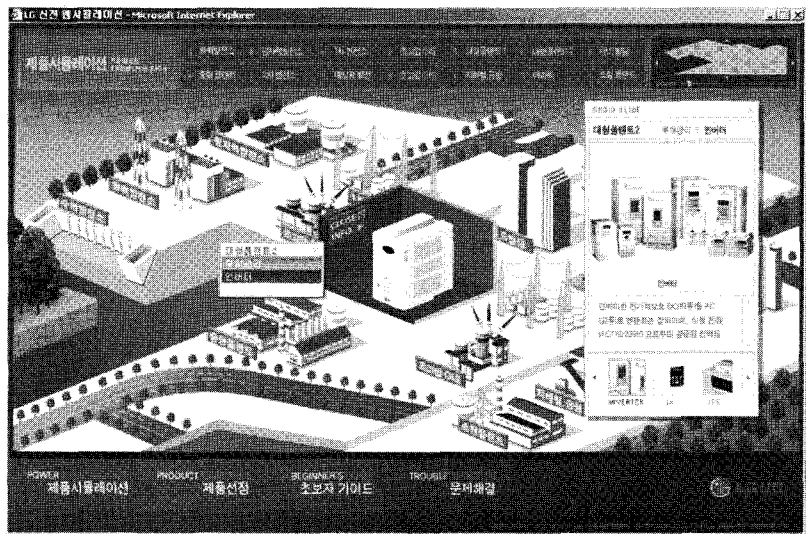
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도시락 배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어깨동무 신나는 집과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희 직원들의 작은 봉사활동이 사회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하였다.

LG산전(주)

업계 처음으로 종합 웹 시뮬레이션 서비스 실시

LG 산전(대표: 김정만)이 최근 홈페이지상에서 업계 최초로 종합 웹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고객만족 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웹 시뮬레이션은 6개월 기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제품 시뮬레이션 ▲제품선정 ▲초보자 가이드 ▲문제해결 콘텐츠로 구성된다.



‘제품 시뮬레이션’은 발전소에서 공장, 빌딩 등 전력 수용가까지의 전력계통도 상에 각각 적용되는 LG산전 제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품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고객들이 한눈에 쉽게 LG산전 제품들의 기초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제품 선정’은 고객이 원하는 사양 조건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제품 모델과 부속장치, 가격정보 등이 제공되는 맞춤형 콘텐츠이다.

‘초보자 가이드’는 제품을 잘 모르는 고객이라도 쉽게 제품을 작동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웹 사용설명서이다.

‘문제해결’은 제품 작동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순서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콘텐츠이다.

LG산전 관계자는 “LG산전이 제공하는 종합 웹 시뮬레이션은 동종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비스”라며 “올해 안에 중국 시장 고객들을 위한 중문 웹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중에는 영문 웹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주)

베트남 총리 방문, 협력 논의

현대중공업에 판 반 카이(H.E. Phan Van Khai) 베트남 총리가 1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9월 18일 방문했다.

오전 11시 현대중공업에 도착한 판 반 카이 베트남 총리는 최길선 사장과 조선, 엔진기계 등 각 사업본부장의 영접을 받고 전시관 및 홍보영화 관람, 선박 건조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방문에는 웬 신 흥(Nguyen Thi Hang) 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무역 관련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 언론사 취재진 등 공식·비공식 수행원 110명이 함께 수행해 적극적인 대한 경제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유례없이 긴 약 2시간 30여분 동안 조선 야드, 엔진공장을 시찰하고, 전시 중인 굴삭기, 휠로더 등 건설장비를 둘러보며 현대의 기술력과 규모에 지대한 관심을 표했다.

베트남 총리는 이어 정몽준 의원과 오찬을 함께 하며 그 동안 다져온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한편, 중공업 분야의 앞선 기술 이전과 함께 투자 유치를 강력히 희망했다.

정몽준 의원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양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갖추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경제 개방이 시작된 1988년 이후 활발한 외자 유치활동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서는 드물게 연 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바람을 타고 이번 총리 방한 중의 베트남 투자 설명회에는 200여 국내 기업인들이 몰려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고기업’에 선정

현대중공업이 ‘제2회 대한민국 최고기업’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한국경영인협회와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동원증권리서치센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대한민국 최고 기업 심사에서 삼성전자, 포스코와 함께 대상에 해당하는 ‘월드 클래스(World Class)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최근 미국 휴잇(Hewitt)사가 선정한 ‘한국 최고의 직장’에 선정된데 이어 취업 사이트 잡링크가 조사한 ‘가장 입사하고 싶은 10대 기업’과 한국능률협회가 조사한 ‘중공업 분야 최우수 이미지 기업’, 엘테크경영연구소의 ‘한경-레버링 훌륭한 일터상’ 등을 수상했고 산업자원부의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업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높은 위상

을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종합 중공업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인협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을 30개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최우수기업을 조사했으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INI스틸 등이 이에 선정됐다.

(주)효성

임직원, 수해복구 중력지원

효성그룹이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총력지원에 나섰다.

효성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온 조석래 회장은 9월 16일 성금으로 3억원을 기탁하였으며, 17일에는 수해지역 직접지원을 위해 지방사업장별로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총 200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울산, 마산 등 수해지역으로 급파했다.

또한, 생수 830박스를 수해지역(여수)으로 보냈으며 정보통신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은 수해지역을 돌면서 금융기기 무상점검 및 A/S를 실시했다.

파견된 효성 자원봉사단은 울산, 창원, 마산 등 수해지역에서 벼세우기, 낙과줍기, 쓰레기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효성그룹은 전사적

인 농촌지역 낙과사주기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때와 연말 불우이웃돕기, 올해 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에 총 6억원을 기탁하는 등 그룹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산중공업(주)

베트남 발전설비 시장 진출 ‘본격화’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이 베트남 발전설비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한다.

두산중공업은 9월 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방한중인 베트남 판 반 카이 총리와 경상남도 김혁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체인 릴라마(Lilama Corporation, 회장 Pham Hung)사와 베트남 발전설비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두산중공업은 릴라마사가 현재 추진중인 2000 MW 규모의 4개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공동 진출 할 수 있게 됐고, 특히 201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14400MW 규모의 베트남 발전설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릴라마사 역시 프로젝트 공동 수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tractor) 및 기기제작 부문에 대한 기술이전 및 인력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양사는 이밖에도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릴라마사는 1960년 베트남 전후 복구를 위해 설립된 최대 국영기업으로 1만 7천여 명의 인력에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기기 제작 및 설치, 토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계약식에 참석한 판 반 카이 총리 역시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에 게 세계 발전설비 시장을 이끄는 월드 클래스 수준의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기술지원 및 투자 등 양사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베트남 발전설비 시장에 이익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산중공업 화력BG장 홍성은 전무는 “베트남 발전설비 시장은 치열한 국제경쟁과 현지회사 보호정책으로 여전히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였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번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과의 MOU 체결로 베트남의 빠른 경제개발과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소 건설에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외 산업설비 및 토목공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97년 베트남 하이퐁시에 발전 및 산업 플랜트설비 제작회사인 한비코(HANVICO)를 현지 업체와 합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5년 4월에는 도 무어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2002년 8월에는 응웬 탄 둥(Nguyen Tan Dung) 베트남 제1 부총리 일행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왔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2010년까지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0여개가 넘는 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도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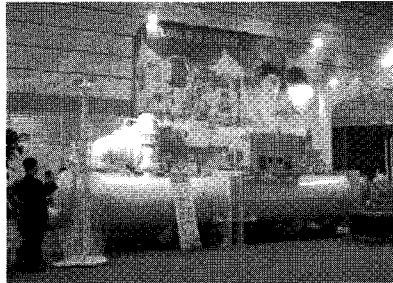
LG전선(주)

초대형 터보 냉동기 출시

LG전선(대표: 한동규)의 기계 부문에서 축구장 10개 규모의 넓이인 2만평 정도의 실내를 동시에 냉방시킬 수 있는 초대형 터보 냉동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 출시하였다.

이 터보 냉동기는 국책 과제로 국산화에 착수, 20여 억원을 투자하여 4년 만에 개발한 제품으로, 환경규제에 맞춰 오존층 파괴 지수가 "0"인 첨단 제품이다.

현재 터보 냉동기는 1,000RT급이 최대 규모로(Refrigerator Tone, 1 RT는 10평 규모 냉방 능력) 운전용량이 증대함에 따라 2만평의 냉방이 필요할시 기존 제품 2대로 설치 운용하는 것을 1대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격 및 운영비에 대한 효율성은 물론



설치 공간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LG전선의 공조 개발팀의 고명해 부장은 터보 냉동기는 일반 대형 빌딩은 물론 온도에 민감한 제약, 화학 등의 생산 시설과 정확한 온도 제어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 등에 적합하며 이로 인한 수입 대체효과는 1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터보 냉동기는 2,000RT 17대로 LCD관련 회사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선은 이 제품을 올해 안으로 총 100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년 내에 3,000RT급 이상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주)

이임택 사장, 국가생산성혁신대회 「은탑산업훈장」 수상

한국남부발전(주) 이임택 사장이 지난 9월 5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2003년

도 국가생산성향상 유공자부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제27회를 맞이하는 국가생산성혁신대회는 경영생산성 향상실적이 우수한 기업 및 개인을 표창하여 기업의 경영생산성 향상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주관으로 산업자원부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기업 부문의 권위 있는 시상 제도이다.

이번에 유공자부문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이임택 사장은 한국남부발전의 초대사장을 역임하기 이전부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한국 최초로 해외플랜트 턴키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기술 진출을 선도해왔으며, 이러한 해외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발전 회사의 대체에너지사업 개발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발전사업 진출로 미래 성장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 창립시 적자전망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흑자경영의 폭을 확대시키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약 1000억의 경영흑자를 달성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임택 사장은 민간기업의 효율경영을 한국남부발전의 혁신경영과 접목시킨 결과, 괄목할 만한 경영혁신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 선정 기업부문 '2002년도 경영혁신 대상' 수상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신산업경영원이 주관한 '2003. 신산업경영대상(관리대상 기술부문)'을 수

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중부발전(주)

인도네시아파워(주)와 상호협력 협정 체결

한 국중부발전(주)는 인도네시아 국영 발전회사인 인도네시아파워(주)(사장 Firdaus Akmal)와 2003년 9월 8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사는 발전사업 관련기술, 정보, 인력교류와 병행하여 한국중부발전의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진출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하고 있으나 투자재원 부족으로 전력설비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해외발전사업 진출을 적극 검토 중인 한국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인도네시아파워(주)는 우리의 발전기술을 벤치마킹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파워(주)는 1995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PLN)에서 분리된 설비용량 900만kW의 인도네시아 최대 발전회사이다.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 국서부발전(주)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는 지난 9월 18일 발전처 대강당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서인천복합은 지난 6월 23일부터 실태분석 평가, 인증평가, 인증평가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KOSHA 18001 국내인증과 영국 BSI에서 주관하는 OHSAS 18001 국제적 인증을 동시에 획득함으로써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함께 인증 받는 효시가 되었다.

농민사랑 및 불우시설 위문

한 국서부발전(주)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곡수매 등 어려운 농촌을 돕고 항상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불우 시설에 보탬이 되고자 농촌지역에서 쌀 100포대(시가 400만원 상당)를 구매하여 지난 17일 중증장애아동 요양기관인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사랑마을'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한사랑마을'은 2001년부터 서부발전과 인연을 맺은 후 매년 본사 전 직원들이 방문하여 청소와 세탁, 목욕지원 등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평택화력, ISO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

한 국서부발전(주) 평택화력발전처는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평택화력은 2003년 3월 17일 추진팀을 구성하여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7월과 8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2003년 9월 3일자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수여받았다.

한편 제막식에 참석한 평택화력 임직원들은 전부서 직원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인증을 자축하고 앞으로도 환경경영체제의 지속적인 유지, 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환경경영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전기연구원(주)

차세대성장동력 등 사업 도출, 기획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한 국전기연구원은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환경·에너지 분야의 본격적인 사업도출 및 기획 추진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홈 기술개발 지원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전원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스마트홈 기술개발 지원센터"는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중 하나인 '지능형 홈 네트워크' 분야를 중심으로 ▲통

신/네트워크 ▲홈 시스템 등과 연계된 사업을 도출·기획하고, 정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원연구센터”는 대체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및 에너지문제와 Clean 에너지 확보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기술 ▲전력계통 연계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확보,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홈 기술개발 지원센터”에는 김은동(金垠東) 재료융용연구단장을, “신재생 에너지 전원연구센터”에는 임근희(林根熙) 산업전기연구단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임명,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 1호기 보일러 최초점화 성공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초 800 MW 대용량으로 건설되고 있는 영흥화력 1호기의 최초점화를 2003년 9월 17일에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전력사 창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단축공정 목표보다 14일 앞당겨 성공한 최초점화는 표준석탄화력과 상이한 최초의 격상 설비 건설에 따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기술역량을 입증함으로써 발전시장에서 우리 한남전의 위상을 드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하여 김복동 처장 이하 전 직원과 관계사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잔여 진행 공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영흥화력 1호기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일러 최초점화 성공을 통해 많은 전력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된 영흥화력 건설처 직원들은 세계 제일의 선진화된 발전소를 탄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해외 원전시장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국내 원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소, 두산중공업(주), 현대건설(주) 및 (주)대우건설 등 8개 기관은 2003년 9월 2일 오전 11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상기 기관들은 지금까지 국내 원전사업을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원전

시장에의 공동진출이 서로 이익이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향후 해외 원전시장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해외 원전 건설, 운영 및 정비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사업정보 교환은 물론 마케팅팀 파견, 사업제의서 개발, 입찰 참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본 양해각서에 따른 기관별 역할은 국내 원전사업의 사업체제에 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해외 원전시장 개발을 위한 종합조정 및 총괄업무는 국내 원전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국내 원전사업은 지난 3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어 국내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주요 에너지원이 되었으며, 건설 및 운영분야 전반에 걸쳐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등 튼튼한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원전 부흥기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을 꾀하여 왔다.

특히 루마니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규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에 대해 지속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전기술 선진국인 북미지역에 대해서도 기술지원 및 기자재 수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로 우리의 원전산업이 국내에서 벗어나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